

〈쓰기-3.글쓰기-(7)자신의 경험을 나타내는 수필쓰기〉

1. 차시 개요

학습단계	학습내용	쪽수
개념학습	1.영상-국어 시간에 학생들이 수필을 쓰는 사례 2.수필의 개념과 특징 1)3.회고록의 개념과 특징(자서전과 회고록의 비교.대조) 4.수필과 회고록을 쓰는 일반적인 과정 5.수필의 예 -#수필: 이경림, ‘시금치 한 단의 추억’ 6.학습 내용 정리	133~139
↓		
연습문제	1.수필과 회고록의 특징 파악하기(끌어내기) 2.수필을 쓰는 과정 이해하기(끌어내기) [3~4]수필(시금치 한 단의 추억)을 읽고 글쓰이의 경험과 생각 파악하기 3.글쓰이의 경험과 생각 구분하기(끌어내기) 4.글쓰이의 경험과 생각 요약하기(서술형) 2)5.수필에서 드러나는 표현 방식의 특징 찾기(선다형) [6~7]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회고록을 읽고 내용 정리하기 6.회고록의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기(끌어내기) 7.글쓰이의 생각이나 태도가 드러난 부분 찾기(선다형)	140~146
↓		
상황학습	*찜질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수필 쓰기	147
↓		
적용문제	3)1.만화가 조애니의 회고록 앞 부분 완성하기(서술형) 2.가장 충격적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수필로 쓰기(서술형) 3.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회고록 형식으로 쓰기(서술형)	148~150

#작품 해제 : ‘시금치 한 단의 추억’(이경림)

-종류: 경수필

-주제: 정직의 중요성/ 정직이 사라져가는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

-개요:

구성	주요 내용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린 시절 ‘나’는 시금치 심부름을 갔다가 주인의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아왔다.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돌아온 ‘나’를 어머니께서는 호되게 야단치신 후 돌려주라고 오라고 하셨다.
경험을 통한 깨달음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정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 시대에 정직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갖는다.

1) 안내자의 설명이 두 번 반복됨. 한 번만 설명하도록 수정.

2) 5번은 원래 프로그램에서 7번에 해당하는 문제임. 문제의 흐름상 7번 문제를 5번으로 가져오는 것이 적절할 듯함.

3) 제시된 만화 상황이 문제의 의도에 맞게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서 만화 상황에만 기초해서 학습자들이 회고록을 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듯함. 만화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듯.

2. 국어 활동별 학습맵

담화 주제 및 활동	관련 자료
*자신의 특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필 쓰기	IV.쓰기/ 3단원 글쓰기/ 7차시 상황학습 147쪽 [바로 가기] IV.쓰기/ 3단원 글쓰기/ 7차시 적용문제 2 149쪽 [바로 가기]
*과거의 인상적인 경험들을 회고록으로 쓰기	IV.쓰기/ 3단원 글쓰기/ 7차시 적용문제 3 150쪽 [바로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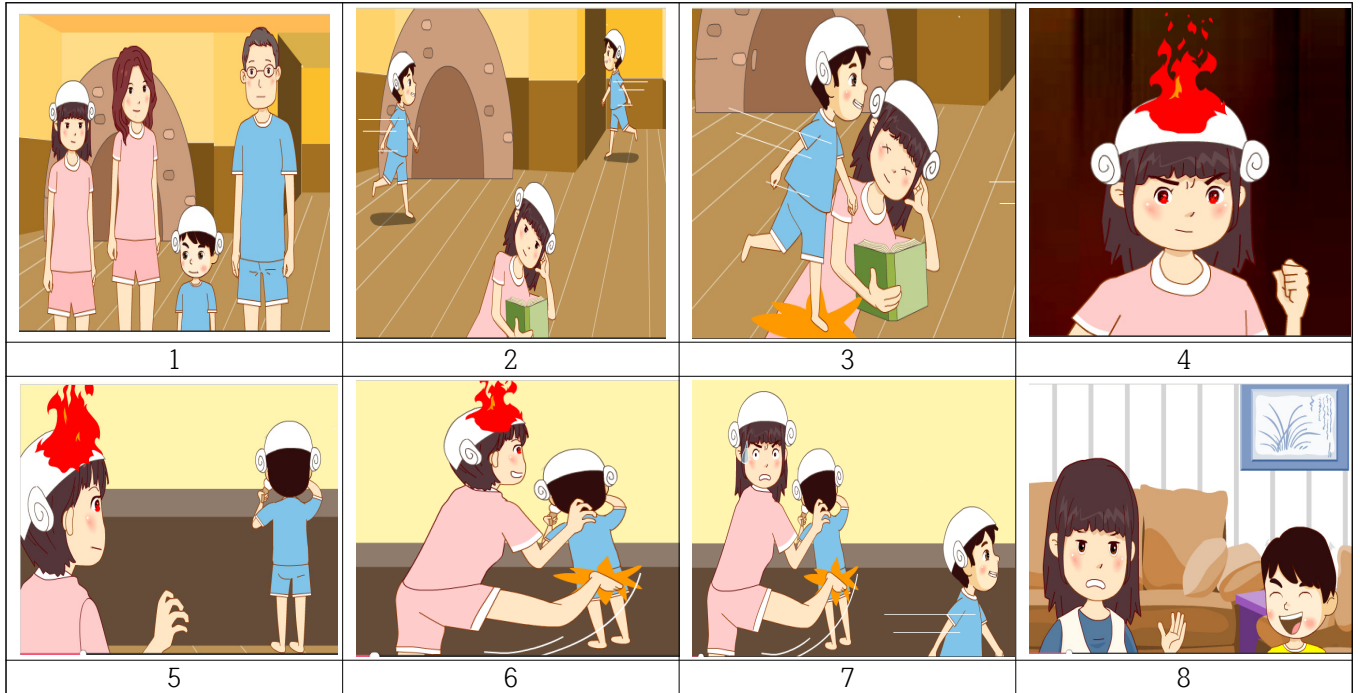
3. 학생 질문별 학습맵

나의 궁금증	관련 자료
*회고록이 뭐지?	IV.쓰기/ 3단원 글쓰기/ 7차시 개념학습 3 136쪽 [바로 가기]
*수필은 어떻게 써야 할까?	IV.쓰기/ 3단원 글쓰기/ 7차시 개념학습 2,4 135쪽,137쪽 [바로 가기]
*회고록은 어떻게 써야 할까?	IV.쓰기/ 3단원 글쓰기/ 7차시 개념학습 3~4 136~137쪽 [바로 가기]

<활동지>

쓰기3.(7)-상황학습과 적용문제 1번 활용

※ 다음은 지은이의 경험을 상황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은이가 자신의 경험으로 수필을 쓰는 과정을 참고해서 수필을 완성하시오.



지은이가 수필을 쓰기 위해 생각한 과정



그래, 나의 이 경험을 가지고 수필을 써 보자. 일단 내용은 선정했으니 수필을 쓰는 두 번째 단계 ‘구성하기’를 해야겠지? 먼저 내가 겪었던 이 일을 생생하게 설명해야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밝히면 될 거야.

그럼, 다음으로는 ‘표현하기’를 고민해 보자. 음...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재미있으면서도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에 배웠던 다양한 표현 방법의 예를 먼저 찾아볼까? 그래, 내가 겪은 일들이 약간 웃기면서도 반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실감나게 살리기 위해서는 직유법, 과장법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 봐야겠다. 처음 부분에는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었는지를 밝히고 기본적인 상황을 써야지. 그 다음에는 동생이 나에게 한 행동과 내가 동생에게 한 복수를 과장법을 써서 실감나게 설명하고 그 다음 문단에서 어처구니없었던 상황을 직유법 등을 써서 설명해야겠다. 마지막으로 그 일이 있은 후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밝히면 되겠지? 와~ 간단한 걸? 이게 정말 내가 쓴 수필이라는 말야?

<구타>

이 일은 내가 한 많은 실수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2000년 겨울방학의 어느 날, 나는 동생과 함께 집 근처 찜질방에 갔다. 동생은 찜질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놀았고, 나는 찜질방 한가운데 있는 텔레비전 앞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사건의 시작은 이때부터였다.

※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편의 수필을 쓰시오.

쓰기3.(7)-연습문제6~7번과 적용문제 3번 활용

※ 다음은 <보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고록을 쓴 예시이다. 예시를 참고하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한 편의 회고록을 쓰시오.

<보기>	회고록의 예시
보기 겨울이 가고 다시 3월이 되어 2학년이 됨. 3월 2일에 믿음초등학교에 입학함. 여름방학때 서울 큰아버지댁에 갔으나 감기에 걸려 일찍 돌아옴. 10월 5일에 운동회를 함. 5월에 계곡으로 소풍을 감.	나의 초등학교 1학년 시절 나는 2001년 3월 2일 믿음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우리 집에서 빠른 걸음으로 한 시간은 걸어야 갈 수 있었던 그 학교는 좋게 말해서 아담한 아주 조그마한 학교였다. 입학식에 온 학생은 나를 포함해 세 명이였다. 최근 몇 년 이래 가장 많은 학생이 입학하였다고 학교에서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다. 5월이 되어 소풍을 갔는데, 소풍 이래야 전 학년 12명이 뒷산을 넘어 작은 계곡에 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 계곡에서 우리는 한 삼삼 번쯤 뛰어내리기 놀이를 했는데, 결국 5학년의 재승이 형이 바위에 다리를 부딪쳐 시퍼렇게 멍이 들고 나서야 우리는 그 놀이를 그만뒀다. 여름 방학이 되자 나는 서울 큰아버지댁에 갔다. 서울은 내가 사는 시골보다 놀거리도 없고 심지어 놀이터에 아이들도 없었다. 게다가 어딜 가나 틀어주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생전 안 걸리던 감기까지 걸려서 결국 일주일도 안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집의 소중함을 태어나 처음으로 느꼈었던 것 같다. 10월 5일에 있었던 가을 운동회는 단순히 학교 행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잔치였다. 나는 우리 엄마가 달리는 모습을 보며 아기 곰이 뛰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운동회가 끝남과 동시에 9월 한 달 내내 운동회 준비 때문에 모든 수업을 음악과 체육으로 대신했던 행복한 시절도 함께 끝났다.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추운 겨울이 금세 지나고 나는 어엿한 2학년이 되었다. 그래바야 교실도 반 친구들도 변함없이 똑같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1학년 때의 어리바리함에서 벗어나 이제 갓 입학해서 어리둥절해 있는 단 한 명의 입학생을 바라보며 뜻 모를 웃음을 짓는 나의 표정이었을 것이다.

[illegible]